2027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2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300점, 400~500자)　　문제 2 (500점, 800~900자)　　총점 800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제시된 작성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열)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세종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가) 한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나는가는 산업의 구조와 기업의 고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에 그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교육 제도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두 흐름이 서로 어긋날 때 일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생겨난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남짓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은 빠르게 늘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 시장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의 정규직처럼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와, 영세한 기업이나 비정규직처럼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로 나뉘어 있으며, 두 영역 사이의 격차가 크다. 처음에 어느 쪽에서 일을 시작하느냐가 이후의 임금과 경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들은 첫 일자리를 쉽게 고르지 못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청년이 졸업을 미루거나 몇 년씩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며 좋은 일자리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현상과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현상이 한 사회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들이 그런 기업을 외면하는 까닭은 일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 그곳에서 시작한 경력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이 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저마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자격증, 어학 점수, 인턴 경력 같은 이른바 '스펙'을 쌓는다. 한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모두가 더 높은 점수를 갖추면 그 점수는 더 이상 남보다 앞서게 해 주지 못하고, 다음 해의 지원자는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겨우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 개인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좋은 일자리의 수는 그대로이므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준비 기간만 길어진다. (중략)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은 흔히 '눈이 높다'거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해마다 수많은 청년이 같은 길목에서 같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여 겪고 있다. 한 사람이 목표를 낮추어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사정은 나아질 수 있지만,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고, 그 격차 앞에서 망설이는 청년은 다음 해에도 다시 나타난다.

(나) 지난주 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났다. 졸업한 지 두 해가 지났지만 아직 첫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서를 넣을 만한 곳은 대부분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신입 사원을 뽑아 오래 가르치던 기업들이 이제는 곧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그때그때 뽑는다. 게다가 신입 사원이 처음 맡아 일을 배우던 자료 정리나 간단한 문서 작성 같은 업무는 점점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하고 있다.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얻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후배는 "신입이 경력을 대체 어디서 쌓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후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턴과 계약직을 몇 차례 거치고도 정식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 청년이 적지 않고, 아예 구직을 쉬고 있다고 답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일을 배우며 성장할 첫 계단이 사라지면 청년들은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다. 기업이 당장의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신입을 길러 내는 일을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다) [앞부분의 줄거리] 1930년대 서울,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지만 오랫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P는 취직을 부탁하러 선배인 K사장을 찾아간다. K사장은 빈자리가 없고 후보자도 몇십 명씩 밀려 있다며 P의 부탁을 거절한다.

"거 참 큰일들 났어."

K사장은 P가 낙심해하는 것을 보고 별로 밑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 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

P는 속으로 코똥을 '흥' 하고 뀌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였다. (중략)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P는 말 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중략)

"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 인구의 팔 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구?"

"저는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잖습니다." (중략)

"가령 응…… 저…… 문맹 퇴치 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 할은 언문[1]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 개선 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무얼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 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P는 K사장이 억담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니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 퇴치니 생활 개선이니 합네 하고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릿살을 앓을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 원인이 기역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까?"

"되면 되지 안 될 건 무어야?"

1. 언문: 예전에, 한글을 낮잡아 이르던 말.

(라)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태도, 가치관 등에서 찾는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를 개인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므로, 해결 방안 역시 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에 초점을 둔다. 구조적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제도나 경제 구조 등에서 찾는다. 이 관점에서는 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되풀이하여 나타난다면 그것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이며, 따라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사회 문제에 두 관점을 함께 적용하여 원인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오늘날의 공통된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을 각각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00점,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문제 2]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밑줄 친 부분들에 나타난 K사장과 P의 태도를 비교하시오. (500점,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끝〉